

그린피스 보고서 <낙싯바늘에 걸린 상어> 요약본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북대서양 상어 조업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과정을 기록하고, 상어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와 그것이 바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건강과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는 공동체를 경시하고 있는 현실을 공개한다. 또, 이익 추구가 산업의 의사결정 기준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는 한편, 그 어느 때보다 효율이 높고 파괴적인 조업 방식인 연승 어업의 실태를 살펴본다.

핵심 내용

- 북대서양 어업의 중심이 황새치에서 상어로 옮겨간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규제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핵심종인 상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 전 세계 상어 제품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상어 조업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허술해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스페인, 포르투갈 등 상어 조업에 관련된 국가의 정부는 수산업계의 영향을 크게 받음에 따라 조업 관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상어고기 수입국으로, 2020년 기준 연간 약 87억 원에 달하는 상어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존하는 지역수산기구(RFMO)들과 상어 포획 국가는 북대서양 청상아리 등 상어 개체수 급감에 책임이 있다. 또한 그들은 자국 산업에 이익이 되는 명확한 과학적 조언인 ‘강력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무시해 왔다. EU와 미국은 북대서양 청상아리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한 규제 마련을 거부하고 강력한 보전 조치에 반대했다.
- 결국 과학계와 시민사회의 권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 북대서양 청상아리는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전 세계 상어 개체수는 지난 50년간 70% 이상 감소했다.
- 상어 제품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세계적으로 연 10억 달러에 이른다. 세계 상어 무역의 큰 손은 유럽으로, 반려동물 사료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상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 지역수산기구는 특히 취약 종 보전에 있어서 다른 협약 및 협정과 조화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해양조약과 병행하는 기구를 설립한다면 고도회유성 어종 및 경계왕래성 어종의 보전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고, 지역수산기구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 각국 정부는 북대서양 청상아리 조업에 대한 과학계의 조언을 지속적,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으며 상어 조업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산업계에 귀 기울여 왔다.
- 연승어업은 점점 더 파괴적 경향을 띠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북대서양의 일반적인 조업일 기준으로 북대서양 물 속에 늘어져 있는 연승줄이 1,200km 이상, 낚싯바늘은 15,500~28,000개로 추정된다.
- 글로벌 해양조약은 각국 정부가 인간의 상업적 접근을 철저히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MPAs)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해 해양을 보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상어고기 국제 무역

- 상어고기 국제 무역은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다. 그 규모는 가오리 고기와 함께 26억 달러(한화 약 3조 4천억 원, 2012-2019)에 이른다. 흔히 상어고기를 아시아 지역 상품으로 인식하지만, 세계 최대 수출국은 스페인, 최대 수입국은 이탈리아다. 사실 유럽연합은 상어고기 국제 무역의 20% 이상에 책임이 있다.¹
- 상어에서 나오는 주요 상품은 고기와 지느러미다. 상어 간유는 화장품과 의약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분인 스쿠알렌을 얻는 데 쓰인다. 콘드로이틴은 상어 연골에서 추출해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중국 문화권에서 별미로 알려진 삭스핀 스프 덕분에 상어 지느러미는 여전히 가장 가치 높은 상어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 상어고기 시장은 지느러미를 자른 상어를 바다에 버리는 일을 금지함에 따라 상어 사체를 물으로 가져와 팔면서 부수적으로 성장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상어에 미칠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어고기 시장은 붐을 이루고 있다.

상어고기 거래의 최근 추이

- 상어고기 시장은 국제적인 무역 현장이다. 무게로 따지면 브라질이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수량으로 치면 우루과이가 최고 수입국가이자 수출국가 중 하나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주요 수출 국가고, 한국과 태국이 많은 양을 수입한다.
- 한국은 USD 기준으로 전 세계 8번째 상어고기 수입 국가로, 2020년 기준 약 87억 원(약 670만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무게로 따지면 2020년 한해동안 약 2474톤의 상어 고기를 수입했다.

스페인	\$24,075,118
-----	--------------

¹ WWF (2021). The Shark And Ray Meat Network: A Deep Dive Into A Global Affair.
https://wwfeu.awsassets.panda.org/downloads/a4_shark_2021_low.pdf

중국	\$21,612,517
포르투갈	\$17,247,454
미국	\$11,867,169
뉴질랜드	\$10,603,901
인도네시아	\$9,286,610
네덜란드	\$5,090,484
우루과이	\$4,940,639
프랑스	\$4,730,065
나미비아	\$3,107,741

표1. 2020년 상위 10대 상어 수출국가 - 가치(USD) 기준

스페인	15,276,582
포르투갈	10,308,068
인도네시아	7,422,293
미국	3,200,718
나미비아	2,870,475
일본	2,436,357
중국	2,417,663
우루과이	2,267,517
뉴질랜드	1,632,563
싱가포르	1,011,890

표2. 2020년 상위 10대 상어 수출국가 - 무게(kg) 기준

이탈리아	\$24,650,182
브라질	\$19,713,899
스페인	\$15,543,810
호주	\$9,962,747
중국	\$8,743,264
포르투갈	\$8,596,872
프랑스	\$7,642,679
한국	\$6,714,853
모로코	\$3,562,502
우크라이나	\$2,343,542

표3. 2020년 상위 10대 상어 수입국가 - 가치(USD) 기준

브라질	13,519,614
스페인	10,044,279
포르투갈	7,261,226

중국	6,880,070
이탈리아	5,946,389
우루과이	2,666,157
모로코	2,628,476
한국	2,474,013
태국	2,146,976
프랑스	1,719,606

표4. 2020년 상위 10대 상어 수입국가 - 무게(kg) 기준